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16학번 강선호입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취업 후기를 작성하는 상상을 하며 취업 준비에 매진했었는데, 이렇게 선배님과 후배, 동기들을 위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

저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에 대해 느끼고 배운 점과 이번 취업에 실패해서 다음 상반기에는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하며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이 모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1. 스펙

### 1) 학점

저의 학점은 4.35이고, 전공 학점은 4.45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점이 높을수록, 전공을 많이 수강할수록 서류 합격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학점으로 성실성을, 전공과목으로 직무 관심도를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점이 높을수록 서류를 지원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점은 항상 평가지표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공과목 수강 목록만 봐도 지원자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신소재공학부는 금속, 반도체, 세라믹 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잘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반도체 기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공과목을 반도체 관련 과목으로 수강하였고,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할 시기이면 학점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부족한 학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 및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학점이 높으면 좋지만, 낮은 사람이 불합격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학점이 아닌 어학성적, 자격증, 대내외활동 부분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강점을 확보하고 밀어붙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 어학성적

제 어학성적은 TOEIC Speaking Lv6 (140)입니다.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성적이지 우수한 점수는 아닙니다. 어학도 학점과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학성적과 자격증의 중요도는 학점만큼은 아니며, 저 역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Speaking 성적을 TOEIC 성적으로 환산했을 때, 토익 성적이 더 높다면 이력서에 기입하지만, 낮다거나 필수가 아니라면 TOEIC 성적을 기입하지 않는 것도 추천합니다.

## 3) 자격증

저는 1종 보통 운전 면허증과 Sig Sigma GB/BB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할 때는 운전면허는 적지 않고 GB/BB 자격증만 기입했습니다. 저는 면접 경험이 많지 않지만, 한 번도 어학과 자격증 관련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과 자격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원하시는 직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기입한다면 면접에서 부정적인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4) 대내외활동

- 창의성/리더십/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공과대학상장
- 한국장학재단 국가 우수 장학금
- 김수현 교수님 학부 연구생
- Six Sigma GB/BB Project
- 내가 만드는 봉사활동 (재능기부)
- 2020 Display Challenge 참가
- 인도 공사, 멩게 수협 아르바이트 & 카페 아르바이트
- 재료공학캡스톤디자인 (1)

제가 대학 생활동안 경험했던 대내외활동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학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들입니다. 물론, 저는 대내외활동을 반도체 분야에 맞춰서 준비하진 않습니다. 대신 제가 학업적인 부분 말고 인성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인성(임원)면접에서 학업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잘하는 것, 성취했던 것, 열심히 해본 경험들과 같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력서의 중요도는 학점 > 대내외활동 > 어학성적 > 자격증 순서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학점은 전공을, 대내외활동은 인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활동과 경험들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도 중요하지만, 재능봉사나 서포터즈와 같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험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2. 취업 과정

### 1) 취업 준비의 시작

저는 취업 준비의 핵심은 “경험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4년 동안 했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했던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프로젝트 진행하며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 직무 수행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같이 하나의 경험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경험을 정리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 전에 경험 정리를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하면, 다양한 기업의 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험과 필요하지 않은 경험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을 준비할 때에도, 작성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질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여 경험 정리한 내용을 항상 숙지했습니다.

### 2) 서류 전형

저는 2021년 하반기 채용 시즌에 총 11개 중 5개의 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이는 절대 낮은 서류 합격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LG, SK와 같은 대기업과 여러 반도체 업계 중견 기업들에 지원했었습니다. 저는 직무 매칭성과 학점이 서류 합격률을 높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경험과 전공 지식이 맞지 않는 다른 분야의 기업은 대기업이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를 선택할 때도, 제 경험과 지식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000명과 같이 대규모로 채용하는 직무와 같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직무에도 지원했는데, 이는 지원자의 소신이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시 채용이 대부분이라서 언제 공고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자기소개서는 미리 작성해놓고, 공고가 올라오면 수정만 해서 제출하는 것이 서류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입한 내용은 전부 면접 전형의 예상 질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면접을 염두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을 부풀리더라도 면접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과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3) 인적성 전형

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을 기준으로 1학기 종강 직후부터 인적성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GSAT를 준비했는데, 인적성은 GSAT가 교과서 같은 존재여서 GSAT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GSAT를 준비한 것으로 LG, SK 인적성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1달 강의를 수강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인적성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고, 정답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유형마다 자신만의 스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모의고사를 1회씩 풀었는데, 문제 풀이 감각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1회를 풀이하면 푼 개수, 틀린 개수, 틀린 유형들을 모두 기록했고, 제가 어떤 유형에서 가장 약한지 파악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순서로 풀이할지 결정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교재를 대략 10권을 2회독 했는데, 서류 결과 발표 후 준비하여 합격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전 인적성 전형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게 준비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 5번의 인적성 시험에서 4회 합격하였고, 인적성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전형을 마치면 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해서 준비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갔습니다.

#### 4) 면접 전형

면접의 핵심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검증”입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작성한 서류의 내용들이 진짜인지, 정말 활동했던 경험인지를 검증하려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소서는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출했던 서류에 맞춰서 예상 질문을 짜고, 답변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인성 관련 질문 200~250개와 전공 및 직무 관련 질문을 10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답변은 절대 외우지 않고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하고 키워드로 정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최대한 간간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면접 스터디는 따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결과 발표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면접 일정이 빽빽해서 스터디 출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취업 상담 선생님과 꾸준한 상담을 통해 예상 면접과 답변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면접을 4번 치르고 느낀 점은, 항상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준비했던 경험 정리 내용 안에서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는 면접 치르기 전에 항상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3. 하고 싶은 말

주위에서 들려오는 채용에 관련한 정보와 찌라시, 카더라와 같은 것들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자기 자신만의 소신과 마인드가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원의 합격과 불합격은 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언제 올라올지, 합격 발표가 언제 일지, 다음 전형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할지를 예상하기 보다는 언제 어떻게 전형이 진행되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멘탈 관리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자신감을 가져옵니다. 이 자신감은 면접 전형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도 나타납니다. 항상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불확실한 채용 시기에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취업 준비 기간에 열심히 응원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동기들과 많은 조언을 주신 교수님, 취업 컨설턴트 선생님들 덕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글솜씨가 좋지 않아 읽기 힘들었을 취업 준비생 분들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많이 읽어본 취업 후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말 편하게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연락처 : 010-2517-4823

E-mail : tjsg4823@naver.com